



승리 아니면 승리주의?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메모리얼 데이(역자 주: 미국의 현충일)가 있었던 그 주의 전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산행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어린곰새끼와 마주쳤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어미곰이 바로 몇 초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미곰은 바로 수풀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죽어라 달렸지만 어미곰은 금방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미곰이 저를 따라잡을수록, 점점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미곰이 저를 거의 따라잡고 이빨들이 딱딱거리며 발톱들이 허공을 가를 때, 저는 급류에 몸을 던져서 작은 폭포를 넘어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쫄딱 젖었고 배낭 속의 물건들이 다 망가졌지만 저는 무사했습니다...

윗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일어났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주 그 전주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모임의 두 사역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급류에 빠져서 쫄딱 젖기는 했습니다 - 그러나 곰으로부터 도망쳐서 구사일생으로 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 위로 떨어진 커다란 통나무를 다리삼아 강을 건너려고 했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18kg의 배낭과 함께 홀라당 뒤로 미끄러지며 얼음과 같이 차가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다지 깊지는 않았지만 급류가 세서 머리를 수면 위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발이 바닥에 닿아서 가슴높이의 하얀 거품물 속을 걸어가서 건너편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로 일어난 이야기이고, 같이 갔던 두 사역자들은 교회의 다른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첫번째의 야생 실수 이야기가 무섭고도 흥분되게, 그리고 살짝 영웅적으로 들린다면, 진짜 벌어진 일인 두번째 이야기는 창피하고

조금은 굴욕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보다 좀 더 능력있고 고상하고 영웅적이고 훌륭하게 자신을 포장하기 원하는데, 이는 인간적인 약점입니다. (혹시 코끼리나 금붕어가 자기 자신을 같은 족속에게 더 멋지게 보이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든 이야기의 영웅으로 상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믿고 전함으로서 스스로를 속인다면 그러한 충동은 최악입니다. 오늘날 낮은 자존감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성경말씀이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들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로마서 12장 3절).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 성향을 다른 이들 안에서 쉽게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을 쉽게



의심하면서 결국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들은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냉소적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재주를 과장하는 운동선수들, 이력서를 부풀려 쓰는 비즈니스인들, 사실을 뒤트는 정치인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노력을 "복음주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신뢰성을 과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익숙할 지경입니다.

저는 유태인 선교 단체의 수장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생기는 긴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를 실제 있는 그대로보다 더 고상하고, 부지런하고, 더 성공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유혹과 싸우는 제 자신을 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스타벅스에 들렀는데, 거기서 우리 단체의 봉고차를 보고 기뻐한 기독교 커플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천명의 유태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Jews for Jesus 에서 그러한 일들을 눈 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들을 주셔서 격려받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들은 언제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곳에서도 유태인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인내심, 용기 그리고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항상 거절을 당합니다 -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의 숫자를 기뻐하고 의지했다면 우리는 벌써 지쳐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달의 전도 캠페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와 같이 기도한 유태인들은 다섯 명이었습니다(3쪽을 보시죠). 1,000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예수님께

대해 더 듣고 싶어서 연락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료를 받고 난 다음 아주 적은 비율만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숫자만이,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성향"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지난 달에 우리는 정기 전도 캠페인을 뉴욕에서 벌였고 또 올림픽 때문에 런던에서 특별 전도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우리 스태프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공개 전도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우리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피로, 좌절과 싸워야 합니다 - 바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전도에 대하여 좀 더 알고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세심한 헌신과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우리의 친구들과 서포터들과 소통하는데 더 낫습니다. 승리주의의 나팔을 불어대는 것보다는 말이죠.

제가 강에 빠졌을 때, 제 사역자 친구들은 저를 차갑고, 젖고, 창피한 채로 내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읽을거리들이 다 젖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들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성경을 더 묵상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폴 목사님이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복사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리 목사님이 가져왔던, 고든 맥도날드의 "Below the Waterline"(진짜 책제목이 맞습니다)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이 드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더욱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자신의 가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은혜의 눈으로 동료 죄인들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점들을 누리기에 너무 늦기 전에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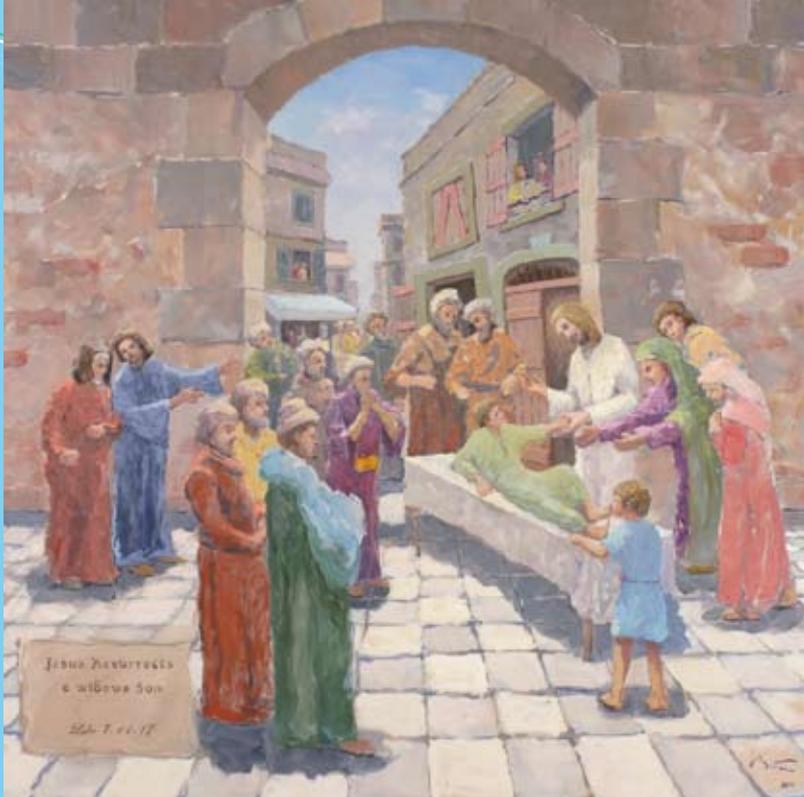
제 죄성을 아는 것을 개발하기 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죄의 냄새를 맡기 전에 제가 먼저 맡기를 원하고, 제가 마땅히 품을 생각보다 더 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기 원합니다. 실제 자신보다 더 제 자신을 낮게 포장하는 유혹을 저는 정면으로 대면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지요?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줄 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은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강에 빠져서 웃음거리가 된 것이 저는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창피했던 것보다 다른 사역자 두 친구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주고 챙겨주었는지가 더 기억이 납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입니다. 강하고 능숙해 보이는 것보다 약하고 다치기 쉬운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무 자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승리를 생각합니다 - 번쩍이는 의상을 입고 왕처럼 행진하는 승리. 그러나 실제로 승리는 못 박힌분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관중의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십자가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분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랑으로 넘치는 승리주의의 자세가 아니라, 고통과 약함의 길에 대한 헌신, 그러나 흔들리기 쉬운 그 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항상 그 분 안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 승리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유태인의 중심 가치들,



유태인적 중심 가치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 더 포괄적으로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전통 유태인 사회에서

랍비 Joseph Telushkin에 따르면, 과부와 고아들에 대한 물질적 도움 그 이상을 주어야 한다. 중세의 유명한 랍비 Maimonides를 인용하자면: 한 남자는 특히 과부와 고아를 대할 때 세심하게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들은 엄청나게 놀라있으며 마음들이 가라앉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설사 부자라 하더라도, 설사 왕의 과부와 고아와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특별하게 보살필 의무가 있다.

랍비 Samson Raphael Hirsch에 의하면, 과부를 뜻하는 히브리어 *almanah*가 *illem*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말 못하는, 말이 없는"이다. 고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yatom*은 사지절단을 내포하는 단어에서 왔다. Hirsch는 해석하기를, 과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서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특히 오늘날 서구사회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같이 않았던 옛날을

생각한다면), 고아에게 도와줄 손을 내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아의 손은 비유적으로 절단 된 것이다. 그는 결론 내리기를 사회의 약자들은 목소리와 살아갈 힘 둘 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히브리어 말씀 안의 기초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나그네, 과부와 고아(어떤 때는 "아버지가 없는"으로 번역된)같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말한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을 둘 다 언급하는 것에 주목하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22장 22-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신명기 10장 17-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신명기 27장 19절, 24장 17절도 볼 것)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이사야 1장 17절, 예레미야 22장 3절도 볼 것)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시편 82편 3절)

이 구절을 읽 구절과 대비시켜 보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신약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과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리 과부들이 자주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족시키려는 그들의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마가복음 12장 41-44절)

예수님께서 과부를 돌보시는 상황이 가장 극적인 기적의 배경을 만들고 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예수님과 당신

- Rich Robinson

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7장 11-16절)

예수님께서서는 과부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경고하셨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0장 46-47절)

교회는 과부와 고아 모두 돌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디모데전서 5장 3절, 디모데후서 5장 16절도 참고할 것)

4-5절의 배경은 바로 혼자인 과부와, 자식과 손자/손녀들이 있어서 돌볼 사람이 있는 과부를 다르게 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은 또한 과부, 고아와 나그네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믿는 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장 16-18절)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시며(요한일서 2장 1절),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로마서 8장 26절) 우리를 고아, 과부나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현대 유대인 문화 속에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유대인 공동체는 고아 복지에 관한 한 전성기를 이루었다. 미국 유대인 역사 협회에 따르면 "1860년대에 유대인 고아원에 처음 설립되었을 때 정부는 사회복지의 거의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유대인들에 의한 기부로 충당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거나 기독교 선교사들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 고아원들은 고아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살아있지만 아이들을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경우도 받아들였다. 즉, 이 핵심 가치는 정말 모든 약자들을 포괄한 것이었다. 어떤 단체는 과부들까지 도와주었는데, 예를 들어 뉴올리언즈에 있었던 유대인 과부와 고아원을 위한 집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집들과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knickerbockervillage.blogspot.com/2008/12/site-of-israel-orphan-asyllum.html.

뉴욕의 유대인 고아원(1860-1941)에 대한 역사적인 사진들의 모음으로는 <http://www.flickr.com/photos/23366371@N08/sets/72157607469100974/>.

과부에 대한 현대 보수 유대인의 시각을 보고 싶다면 <http://www.aish.com/ci/be/48882947.html>.

유대인 친구들과 공감하는 방법

최근에 부모나 배우자를 잃은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유대인식 위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다(카드 파는 곳에 모두 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슬픈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적절한 때에,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맞다. 사별을 당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과부들을 돌보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대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종교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접근해보자. 사람들이 응당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있으며, 성경의 수많은 권고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돌봄을 이야기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조직화된 종교"를 싫어한다면, 위의 야고보서 1장 27절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종교"가 무엇이며, 단순한 신앙적 행위와 대비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권리나 영향력을 빼앗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며, 이는 사회적 이슈들에 접근하는데 주된 힘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그 의미나 해결방법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 기반한 동정심을 같이 가지면서 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José Telushkin, *Jewish Literacy*, p. 503.

[2] www.oztorah.com/2009/01/widows-orphans-mishpatim/

[3] "Cradled in Judea: Jewish Orphanages in New York, 1860-1960", *Heritage* (Otoño 2005), p. 3.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 Lynn McCoy

캐롤이라는 유대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으로 섬기던 분이었는데 몇 달 전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처 교회에서 어느 장로를 통해서 그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가장 의미있고 풍성했던 사역들 중 몇몇은 기독교 친구들을 통해서 된 것들입니다. 지난 아홉 달 동안 2주 간격으로 캐롤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빌리 그래함 설교 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말했고 그녀의 기쁨으로 저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캐롤은 수년 동안 말기암에 시달렸는데, 지난 달 의사들은 그녀에게, 암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고 그녀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캐롤이 예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번째 단계였다면, 최근에 저는 그녀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욕기를 읽었고 그녀는 자신이 욕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엄청난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캐롤은 그녀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볼 수 있었고, 전에 알지 못했던 힘을 찾았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캐롤이 메시아 안에 갖고 있는 소망, 즉 그녀의 현재 상황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에 대하여 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 사도바울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큰 토론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녀는 물리적인 육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인생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하는 그녀의 인생은 영원할 것이며, 그녀의 물리적인 육체는 죽더라도, 그녀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몸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좋고 더욱더 좋고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 영원히 말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안의 그녀나 다른 어떤 이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병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들은 모두 치료될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 고쳐질 것입니다. 불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요한계시록 21장 3-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캐롤은 그녀의 고통이 어느 날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또한 그녀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지낼 것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캐롤에게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라고 권했을 때, 목록의 가장 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캐롤의 믿음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에 놀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망이 없는 진단이지만, 그녀는 메시아와 함께 같이 있는 것에 대한 "축복의 소망"을 점점 보고 있습니다. 캐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특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셔서 그녀가 고통에서 자유롭도록 기도해주시시오.

Lynn McCoy는 워싱턴 D.C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 중 한 명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http://jewsforjesus.org/staff/lynn-mccoy> 로 가시면 됩니다.

지부 소식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스라엘

한 달 동안 갈릴리 이남 지방에서 벌어진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스라엘” 전도 캠페인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Dan Sered가 보고합니다: 우리 티셔츠와 미디어 광고를 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다루고 미움에 대하여 사랑으로 응답한 우리 방법에 감동받은 이들의 숫자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캠페인 동안에 우리 사무실로 수백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 현수막이 거둔 결과였습니다. 66,305의 복음 책자를 나눠주었고 18,192건의 전화를 걸었으며 7,202명과 통화하였습니다. 예수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말한 1,072명의 유대인들의 연락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200명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연락정보 또한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다섯 명의 유대인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뉴욕

Josh Turnil이 보고합니다: 브루클린에는 뉴욕에서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 공동체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Karol Joseph은 전부터 하시딕 공동체 사람들을 흥미롭게 만나면서 이들에게 이사야 53장 전도책자를 나눠주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저에게 권했습니다.

15분 동안 나눠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캐롤을 한숨돌리게 하고 그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를 떼어놓으려고 할 때 다른 하시딕 유대인이 저의 어깨를 탁탁 치며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책자를 나눠주고 있나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만나서 무척 반갑습니다. 빌립

보서를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와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귀로는 제 동료에게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욕하는 것을 듣고, 다른 한 귀로는 우리를 만나서 반가워하는 보수 유대인의 공손하고 진지한 소리를 듣고 있자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작은 최근에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성경을 때때로 공부합니다만 그의 랍비 친구들은 저와 만나는 것을 중단시키고 합니다. 아이작의 믿음이 잘 자라고 다른 이들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수아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뉴욕

Stewart Weinisch가 보고합니다: 저와 제 아내 Shosh, 그리고 선교훈련생 Chantale이 전도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Chantale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등록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Shosh가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Chantale과 이야기하는 남자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Chantale의 모국어는 불어이기 때문에, Shosh는 Chantale에게 그 남자 Herman과 자기가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제가 다시 전화했고 Herman과 방문약속을 그 다음날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오랫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Herman은 자기가 예수님이 그의 메시야가 되어야 하는 필요를 그 동안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그리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뉴욕 지부를 떠나기 전에 그는 우리 스태프 대부분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야로 받아들이도록 지금 기도했고 그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Herman은 저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유대인 아내와 이 새로운 믿음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 지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지요!

주소 정보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Vol. 14 No.4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부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BNZ.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OCBC 예금주: Jews For Jesus

계좌번호 581.252.897.001

PayPal,

신용카드 그리고 TT
로도 후원을 받습니다.

twitter

facebook

Donate now with.
PayPal

JEW'S FOR JESUS™